



영도 남항 등대(2019.1.1.)

## 바다를 열어 그 바다를

海星 김성식

먼 수평선 끝에서  
낡은 색깔을 선미에 매달고 들어오는  
입항선 늑골에  
바다 서너 개가 묻어 있다  
아직 녹지 않은 얼음덩이를  
갑판 곳곳에 얹은 채  
지나간 항로 접어  
떨어져 간 앵카를  
우리들은 본다

돌아가는 레이더 스캐너를 타고  
베링해 언저리 차가운 바람과  
흘수선 아래  
깊숙이 담겨 있던  
대양의 맥박을 들으면서  
정성들여 뜯어 맞춘  
활자들의 행진이  
정박선 갑판 위로  
이리저리 뛰어다닌 지

일곱 번의 봄, 겨울  
맞물려 돌아가기까지  
온 세상 바다가  
아침 섬에 자리잡은  
우리들의 꿈, 지구 끝까지 실어나름을  
보아라  
숫구쳐 떠 오르는 태양이  
물갈퀴와 금비늘 번쩍이며  
꼭꼭 감췄던 바다를  
일시에 풀어  
외항선 마스트를 흔들고 있음을

방파제 너머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출항선의 선수에  
우리들이 같고 씨를 뿌릴  
바다 서너 개가  
일곱 개 포말로 떨어져  
날이 선 활자 위에  
젊음을 매운다.

한국해양대학신문 창간 7주년(1967) 기념시



M/V Adonis호 선교에서 바라본 인도양(2018,8,12.) 당시실항사 정비전 촬영

### Thank you, seamen!

우리 국민 가운데 배를 타고 한바다를 건너본 사람은 우리 전체 인구 가운데 아마 1%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의 뱃사람들이 실어오는 원유와 LNG, 철광석, 밀, 콩 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서의 선원을 폄훼하거나, 낮춰 보는 일이 다반사다. 17-20세기까지 해가 지지 않은 대영제국을 건설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영국의 뱃사람들이었다. 그런 만큼 영국에서 선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대우는 매우 높았다. 영국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식탁을 마주할 때 빵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밀로 만듭니다. 누가 가져 오느냐? 선원들이 가지고 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존경하겠느냐? 선원들을 존경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선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에서 영국의 어머니들은 해양사상을 불어 넣고 아이들을 바다로 내보냈던 것이다. 오늘도 2만여명의 우리 선원들이 바다에서 생존 필수품을 실어나르고 있다. 파도와 바람에 맞서 싸우는 그들의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Thank you, seamen!